

근세 초기 게이초(1596~1615년)부터 겐나(1615~1624년)에 걸쳐 역참이 설치 및 정비되었다. 기소 가문의 가신 후루하타 주에몬의 저택이 있었던 이곳이 다이묘(大名), 막부 관리, 구계(公家: 조정의 귀족과 관리), 고승 등의 공공 숙박시설인 야부하라주쿠의 ‘본진’이 되었다.

안세이 연간(1854~1860년)의 기록에 따르면 정면 너비 14.5 간(약 26m) 깊이 21.5 간(약 39m)의 부지(약 310 평) 안에 6.5 간(약 12m)의 대문과 초소, 마구간, 현관이 딸린 저택으로, 방의 개수는 위층을 포함해 20여 개 있었다. 남쪽 정면 너비 8 간(약 14.5m)이 본진 후루하타 가문(6대부터 데라시마로 개명)의 거주였으나 숙박자가 많으면 함께 사용하였다.

야부하라주쿠의 본진은 나카센도의 험로 중 하나였던 도리이토게(鳥居峠) 기슭에 위치해 숙박하는 사람이 많아서인지 기소의 역참 중에서는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었다.

분큐 원년(1861년)에는 황녀 가즈노미야도 이 본진에 묵었다.